



내 친구는 일흔 한 살

화암고 3-6 김예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회사를 다니느라 바쁘셨다. 그 때문에 집엔 나를 돌봐줄 어른이 없었다.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불쌍했는지 부모님은 내게 다음 주부터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야 한다는 말을 건넸다. 당장 다음 주부터 집을 떠나 낯선 곳에 맡겨진다는 사실이 탐탁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저 내가 이 집을 떠나는 순간이 오기까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오지 않길 바랐기에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날이 왔고 필요한 짐을 챙겨 아빠 차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적막한 침묵이 차 안을 감쌌다. 곧이어 아빠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다.

“엄마 아빠가 바빠서 우리 딸을 할머니께서 돌봐주시기로 했어. 학교도 근처로 전학 갈 거니까 가서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고 적응 잘할 수 있지?”

뒷좌석에서 아빠의 걱정 섞인 당부의 말을 듣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내가 울면 아빠도 울까 봐 당장이라도 흐를 듯한 눈물을 삼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도 잘 지내라고 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내가 살던 도시와는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창문 너머론 처음 맡아본 비릿하고 습한 바다

냄새가 넘실대며 코끝을 스쳤다. 그리고 저 멀리에 내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차에서 내려 내 친구를 처음 마주했을 땐 어색해서 아빠 뒤에 숨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낯설어하는 내 마음을 알았는지 친구는 먼저 내게 인사를 건네오며 주머니에 고이 넣어두었던 사탕을 건넸다. 친구가 준 사탕을 까서 입에 넣고 금세 기분이 좋아진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친구의 집에 들어섰다.

친구는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요리해 줬다. 전에 엄마에게 친구는 요리를 되게 잘한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친구가 요리해 준 밥을 먹고 챙겨온 짐을 풀고 나니 어느새 해는 저물었고 아빠를 보내줄 시간이 왔다. 나는 차오르는 슬픔을 감춘 채 친구와 아빠를 배웅했다. 친구는 아까부터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아는 건지 슬프면 울어도 된다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새로운 학교에 첫 등교를 하는 날이 왔다. 두려워하는 나를 위해 친구는 괜찮다고 용기라도 주는 듯 내 손을 꼭 잡으며 같이 등굣길을 걸어줬다. 그렇지만 친구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에 나를 바라다주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전학 간 학교에서의 내 적응력은 썩 좋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내성적인 성격에, 또래에 비해 성숙한 가치관.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애랑은 친구 하기 싫을 것 같았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저 멀리서 내 친구가 보였다. 나를 기다리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한걸음에 달

려갔다. 그런 나를 친구는 웃으며 안아주었고 나에게 학교에서의 시간을 물었다.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친구가 슬퍼할까 봐 그저 재미있었다고 둘러대며 말할 뿐이었다. 내가 재밌었다는 말에 친구는 마치 본인이 신난 듯 나보다 더 아이처럼 웃으며 기뻐했다. 그렇게 우린 점차 더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친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걱정이 된 나는 친구에게 아프지 말라며 철없이 떼를 썼다. 그런 나를 안심시키려 친구는 애써 웃으며 ‘알겠다’ 했지만 그 웃음마저도 점차 빛을 잃어갔다. 어둠이 빛을 드리우는 게 싫었던 나는 친구가 나를 웃게 해줬던 것처럼 요리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더 크게 웃기도 했다. 내가 슬플 때 친구가 그렇게 해주면 그게 만병통치약이었는데 애석하게도 나는 부작용이 심한 약인 건지 효과는 미미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은 채로 시간은 하릴없이 흘렀고 이대로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다. 어쩌면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두려움.

그로부터 며칠 뒤,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엄마 아빠가 달려왔다. 나를 데리고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의사와 면담했다. 나는 진료실 문 너머로 귀를 기울여 대화를 들었다.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몸 이곳저곳이 아픈 게 당연하다.”라는 말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진료실에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엄마 아빠가 나오고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는 몇 살이야?”

“71살” 엄마가 말했다.

그렇다. 내 친구, 아니 우리 할머니는 71살이다. 그 연세에성한 곳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미어저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할머니와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늘 학교에 친구가 많으며 거짓말하지만 실상은 외톨이였던 내게 세상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하여 내가 식은밥 먹을까 장판 위에 고이 올려두어 식은 적 없던 따뜻한 내 밥공기와 소극적이고 자신감 부족한 내게 늘 최고라고 말해주었던, 언제나 본인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우리 할머니. 나는 왜 할머니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을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후회와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할머니 호흡이 돌아오고 괜찮아지셨다. 물론 아프시기 전보다 아니지만 그래도 큰 고비를 넘겼다. 나는 기적이라 생각하고 신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 어느덧 할머니의 퇴원 날, 어느 때보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첫 등굣날 내 손을 꼭 잡아주었던 할머니의 손을 나도 꼭 쥐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할머니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띠었다.

